

# 월간 **내일**

07 July 2024  
Vol.590



Vol.590

JULY 2024



Vol.590

# Contents

2024.07

Vol.  
590

## 효율적인 날갯짓으로 도약할 내일



### Special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전환의 방향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04

### 토픽 에세이

내일의 도약을 위해, 일과 삶에 효율을!

08

### 우리 사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10

### 어쩌다 우린

기업이 만드는 일·가정의 양립  
잡코리아(유)

14

### 내일 인터뷰

워킹맘·워킹대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장

### Move

우리 사회의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가치있는 이야기

18

### 내일을 향한 도약

더 넓은 시각으로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자 김선민 씨

22

### 고용 아카이브

배워서 나준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느끼는 배움의 즐거움

26

### 희망 브릿지

한계를 뛰어넘고 두 번째 커리어를 잇다  
이선주 수성대백인터빌 관리소장

30

### 일터애(愛)서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받아 가세요!

32

### 내일, 매일

21세기 인류의 필수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김묘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대표

36

### 기자단이 간다

미래 직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란 무엇일까요?



### Wave

오늘의 변화 속에서 펼쳐지는  
유용한 정보와 내러티브

38

### 내일, 플레이스

아주 오래된 대전 소재동 이야기

42

### 트렌드 프리뷰

보다 독특하고 즐겁게!

MZ세대 신규 놀이터, 팝업 스토어 열풍

44

### MOEL 뉴스

48

### 팩트풀니스

지금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50

### 잡, MBTI

광고·마케팅전문가

52

### 낼툰

효율성을 높이는 몇 가지 방법 & 여행의 참맛

54

### WEVENT

초성퀴즈 & 독자 라운지



내일의 도약을 위해,  
일과 삶에 효율을!

효율적인 시간 관리로 유명한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말했다.

“중요한 일은 급한 경우가 드물고, 급한 일은 중요한 경우가 드물다.”

우리는 때로 옮겨붙은 불을 끄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씨를 끄는 일이다.

급한 일에 매달리느라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중요한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두하는 것.

그것이 일의 효율성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일지라도  
중요도에 따라 시간과 순서를 나누고  
하루의 목표치만큼 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일에 효율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일과 휴식을 정확히 분리하는 데도 효율이 필요하다.  
쉴 때는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스위치를 꺼둔 채 여유를 온전히 느껴야 한다.  
그래야 또다시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되기에.

시원한 바람이 유독 반가운 7월,  
일도 휴식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직장인은 출근하면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하며, 회사는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최대한 많은 이익이 생성되기를 추구한다.**

그러나 근무 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생산성과 효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번 호에서는 일·생활 균형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은주 노무사(테라노무사사무소)



### 유연근로시간제도란?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조직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에게는 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연근로시간제도로는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있다.

###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일까?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1개월 등 일정기간을 단위로 총 근로시간 만 정해두고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도가 적용되는 단위 기간에는 법정근로 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기준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업무량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대기시간 및 연장근로를 감

소시킬 수 있다. 직원마다 출퇴근 시간이 달라서 팀별 회의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로하는 의무근로시간(Core time)을 정해둘 수 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 3개월, 6개월 등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x5일), 둘째 주에 35시간(7시간x5일) 근무를 배치함으로써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의 배치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며, 주로 계절적, 주기적으로 업무량 편차가 큰 업종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재량근로시간제** 연구업무나 시스템 설계업무, 출판/방송 등 전문적, 창의적인 내용의 업무로서 업무 자체의 성질상 근로시간 배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다르게 재량근로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진 업무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간 정하거나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배분



### 선택적근로시간제 예시



을 다르게 하여 근로시간 형태 자체가 변화하지만 간주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 형태의 변경 없이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만 편리하게 정하는 것이다.

### 유의 사항과 도입 효과는 무엇일까?

유연근로시간제의 성공적인 도입·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바탕으로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여야 한다. 유연근로시간제를 잘 활용하면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과 사업 특성에 따른 업무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1.3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 기업이 만드는 일·가정의 양립

'2024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잡코리아(유)

내 삶을 보다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안정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잡코리아(유)의 윤현준 대표·인재문화실 이상인 실장·조직문화팀 신현정 팀장은 근로자의 행복이 곧 기업의 성장임을 믿으며,

남녀 근로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힘쓰고 있다.

글 김지연 사진 김규남

## Q 잡코리아는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윤 대표** 잡코리아(유)(이하 잡코리아)는 1998년 취업 포털 서비스를 선보인 이래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일자리 매칭을 통한 고용 확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 플랫폼 외에도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 지역 기반 초단기 재능거래 플랫폼 각몬 등을 서비스합니다. 현재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강화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타입의 일자리를 제공 할 수 있는 정교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며 테크 기반 종합 커리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Q 고용노동부 주관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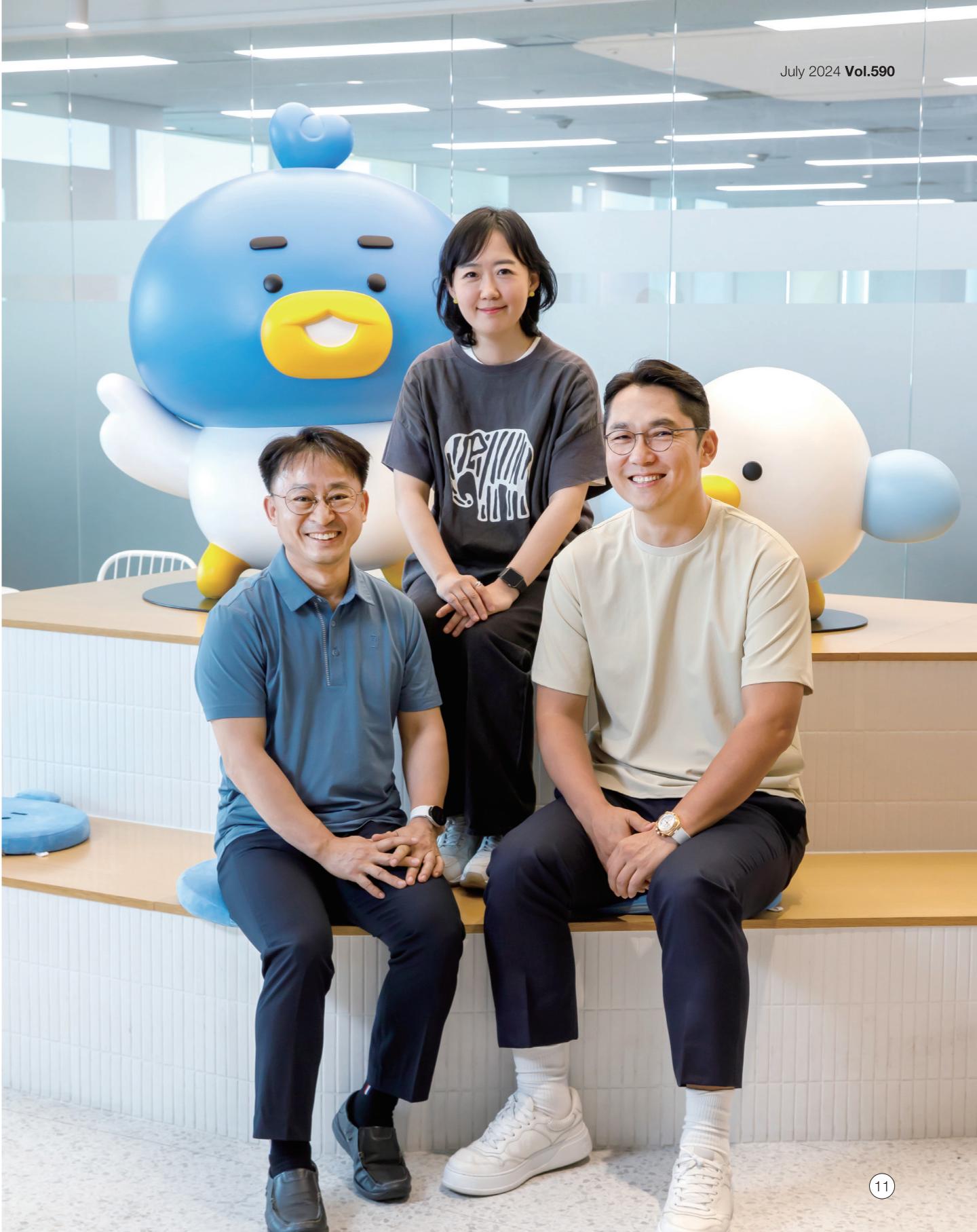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인정받아 수상했는지요?

**이 실장** 잡코리아는 법정 기준을 상회한 여성 근로자의 고용률 유지, 관리자 비율 상승 등 양 성평등 채용 실천,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등 남녀고용평등 문화 조성과 구성원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22년 연속 여성 근로자 고용률을 50% 이상 유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규모와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실천, 청년·여성·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배려,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데, 신규 고용 증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여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습니다.

**Q 잡코리아의 다양한 복지제도 가운데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실장** 2019년부터 상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고, 육아와 가정생활 지원을 위한 패밀리데이(월 1회 오후 2시 퇴근), 반반일 연차, 자녀의 학자금 지원(최대 월 150만 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예정 구성원 및 초등학생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재택근무 시행, 출산 시 축하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남성 구성원 또한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올해 남녀 구성원 통틀어 16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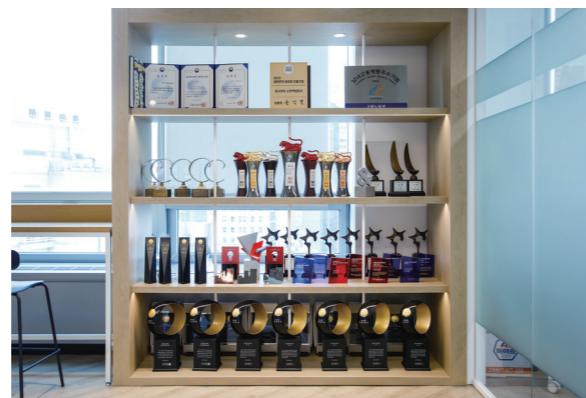
#### ❶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외에도

**구성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와 독특한 조직문화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 팀장** 최근 장기 근속자 대상 포상 제도를 확대했고, 구성원의 복지포인트와 식대 인상 등을 시행했습니다. 그 밖에도 특별승진제도 도입, 운동 보조비, 외국어 교육, 심리상담, 동호회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소통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여러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달 타운홀 미팅을 통해 전 구성원이 비전과 성과, 이슈 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대표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원탁의 링커들’, 구성원 간 칭찬과 감사 등의 마음을 주고받는 ‘슈팅스타 제도’, 외부에서 자유롭게 팀쉽을 다지는 ‘우리 어디가?’, 신규 입사자를 위한 ‘온보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 ❷ 시행 중인 복지제도나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신 팀장** 유연근무제를 시범 운영했을 때, 초기 임산부였던 구성원이 원하는 시간대에 출근하면서 건강도챙기고 집안일에도 여유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패밀리데이에 일찍 퇴근



기업 또한 근로자가 일과 가정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 가족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한다거나 여행을 갈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확보에 따라 평일 낮에 여유가 생겨 각종 민원 처리나 휴식이 쉬워져 업무 효율성이 증가했다고 말한 구성원들도 있었습니다.

#### ❸ 잡코리아가 기업 내·외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들려주세요.

**윤 대표** 구성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해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성과도 나오게 됩니다. 특히 여성 구성원의 경우 일과 가정 양쪽에서 역할을 완벽히 해내기 쉽지 않은데,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역할도 있지만 기업 또한 근로

자가 일과 가정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성원의 행복과 성장이 기업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며, 쾌적한 근무환경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이란

매년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해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고, 사회 전반의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포상제도.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출산·육아 지원 및 유연근무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기업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 워킹맘·워킹대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장



육아와 일, 둘 다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매일 밤 녹초가 되어 쓰러져 버리곤 한다. 하지만 하루 24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고되고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결국 워킹맘·워킹대디가 되는 걸 택할 것이다. 소중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말이다. 무엇 하나 잘 해내지 못한 것 같아 답답한 워킹맘·워킹대디에게 다행히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 바로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장이다.

글 박영화 사진 김경수



## Q 한국워킹맘연구소는 어떤 곳인가요?

한국워킹맘연구소는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워킹맘·워킹대디 전문 기관입니다. 교육, 상담, 출산과 육아휴직 복직 프로그램, 일·가정 양립 지원, 워라밸 프로그램, 인식개선 프로그램, 경력단절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2008년에 아이를 출산 후 친정에 맡기고 일했는데, 아이가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엄마를 볼 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일을 그만두고 엄마로만 살기로 했죠. 하지만 내 존재는 없어진 채 엄마로만 살아가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다시 시작하는 것도 막막하더라고요.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야 겠다’고 결심하고 2009년에 워킹맘 100명과 함께 한 ‘해피워킹맘축제’를 시작으로 한국워킹맘연구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 Q 소장님도 과거에는 경력단절여성이었고, 현재는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왜 굳이 일을 하려고 하냐는 질문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물론 있죠.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건 경험하지 않아도 다들 알잖아요. 저 역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워킹맘의 희로애락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워킹맘·워킹대디나 경력단절여성의 고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업주부로 살아보니 전 일을 해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를 워킹맘 DNA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 Q 소장님은 어떤 내용의 강연을 주로 하시나요?

일과 삶의 행복찾기(워라밸), 육아휴직복직자 대상 Re-Start 과정, 워킹맘(대디) 역량 강화 및



스마트 육아 등의 주제로 강연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제가 강연을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워킹맘·워킹대디의 고민은 비슷합니다. 다만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정말 많아졌어요. 15년 전에는 강연에 아빠가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은 아빠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와 친밀감을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아이가 7세가 되면 초등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합니다.

#### Q 일과 가정, 육아의 균형을 잡는 게 가능할까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잡고 두 가지 모두 완벽하게 잘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완벽하게 잘하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자녀의 생애주기별로 조금 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주로 아이의 성장 전환점 시기인데, 크게 신생아, 4~5세, 초등 입학, 초등 4학년, 청소년 시기죠. 이때는 아이에게 좀 더 신경을 쓰고 안정이 되면 다시 일에 비중을 두는 식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워킹맘·워킹대디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대부분 일과 육아 사이에서만 고민하고 정작 본인을 위한 노력이 없어요. 내 시간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통해 정기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물론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힘들어요. 부부가 함께 배려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시간을 정해 그때만큼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해요. 중요한 부분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정하지 않으면 의미 없이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엄마의 운동 시간'으로 정하면 가족도 그 시간을 엄마의 시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 Q <월간 내일> 7월호 주제는 '효율성'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하려고 하는 이유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



**설령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만큼은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오늘도" 라며 위로하고 토닥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효율성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목표를 세우고, 눈에 띄는 곳에 붙여 놓은 뒤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겠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저는 10분이라도 짬이 나면 책을 읽는데, 그렇게 한 장 두 장 읽으니 도움이 많이 됩니다.

#### Q 강연에서 워킹맘·워킹대디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해주시나요?

'너무 질하려고 애쓰지 마세요'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못하는 요리는 더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해요. 건강한 밥상을 직접 차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웃으면서 즐겁게 식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내고 있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설령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만큼은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오늘도" 라며 위로하고 토닥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 줄 때, 가족과 주변인도 나를 귀하게 대우해 줄 수 있습니다.

#### Q 마지막으로 워킹맘·워킹대디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신에게 말로만 칭찬하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몸에 좋은 걸 먹고, 운동도 하면서 자신을 아껴주세요.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면 일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죠. 내가 나의 든든한 응원군이 된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성장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 있을 테니까요.

## 더 넓은 시각으로 내 안의

### 가능성을 깨우다

일자리를 찾는 과정은 '나'를 알아가는 일과 다름없다.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 성장의 진폭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고민하던 김선민 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숨겨진 잠재력을 일깨우며 새로운 '나'를 만났다. 그리고 지금, 영화학도에서 홍보직 3년 차로 성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글 김주희 사진 오충근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자  
김선민씨



#### 학생과 사회인의 경계, 완충재 역할

영화를 전공한 김선민 씨는 졸업을 앞두고 현실 앞에서 고민을 거듭했다. 영화산업 특성상 인정성 등이 자신이 생각한 이상향과 달랐기에, 회사에 취직하기로 결정했다. 갑작스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던 차, 부모님이 지역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국민취업지원제도 팜플릿을 본 후 상담을 받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재했던 제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길라잡이가 되어줬어요. 사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직무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내 역량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

했죠. 무엇보다 상담사와 세심하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전공 분야 외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점을 개선하고 싶은지, 더 배우고 싶은 건 무엇인지 등등 스스로 나를 파악하며 길을 열어갈 수 있었죠." 차츰 자신의 길을 SNS 콘텐츠 제작으로 구체화 하던 중 직업훈련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자격'도 갖추기 시작했다. 공기업 취업에 유리한 컴퓨터 활용능력 1급 과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수강비는 큰 부담인 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의 발판이 되어주었다. 김선민 씨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홍보 직렬에 지원해 인턴 채용에 합격하며 사회인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많은 사람이 대학교 졸업 전까지는 큰 고민 없이 주어진 틀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졸업 후에는 나를 보호해 주던 울타리가 없어지고요. 이 때 참 불안해지더라고요. 사회적 틀이 사라지는 과정 속,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학생이 사회인으로 나아갈 때 완충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진지하게 나에 대해 고민하고 취업을 준비하도록 도움을 주죠. 저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큰 어려움 없이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 과학기술 홍보, 업(業)의 즐거움을 누리다

첫 인턴 활동을 마친 김선민 씨는 또 다른 과학기술계 기관 이직을 거쳐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중이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을 국민에게 알리고, 오프라인에서는 다양한 국내 전시에 참여하며 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영화감독을 꿈꾸던 학생에서 과학기술 분야 홍보직으로, 새로운 시도는 김선민 씨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물론 처음부터 꼭 맞는 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인턴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많은 연구자와 소통하면서 점차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신기한 현상들이 많고 이를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는 질문과 해답이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그리고 이 관심은 과학기술과 업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졌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들과 인턴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직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이전 직장에 재직 중일 때 우연히 치킨 브랜드 감사 편지 공모전에 지원했는데 운 좋게 제 글이 선정돼 치킨 100마리를 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킨 차가 회사 앞으로 찾아와 치킨을 나눠줬습니다. 다음날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날이었는데, 뜻밖의 이직 선물을 드린 셈이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 취업 준비는 미래를 만드는 과정

김선민 씨는 평소 생각노트로 명명한 수첩에 틈틈이 메모를 이어간다.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 이야기를 통해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그때 떠오른 아이디어나 글을 충실히 수집하는 중

이다. 누구든 손쉽게 과학 이야기를 하는 날을 목표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주고자 한다. 더 흥미롭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역량을 꾸준히 쌓아갈 참이다.

업무적인 성장을 넘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김선민 씨. 매사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자세로 임하고, 꾸준히 노력하며 희망을 전달하고 싶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좌절과 실패를 겪는 청년들이 ‘노력해도 안 돼’가 아닌 ‘저 사람도 했으니 나도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삶을 꿈꾼다.

기회란, 내가 머물렀던 곳에서 딱 한 발짝 나아갈 때라야 찾아오는 게 아닐까. 국민취업지원제

도를 통해 생각의 범위와 활동의 반경을 넓힌 김선민 씨는 또 다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 중인 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메시지를 덧붙였다.

“취업 준비 기간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할 시간이 지금껏 살아온 시간보다 많을 테니까요.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도전을 꼭 경험해 보세요. 성공했다면 계속 지속하고, 실패했다면 스스로에게 피드백하며 다시 도전하길 추천합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앞으로 일할 수십 년의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도전을 꼭 경험해 보세요.”



# 배워서 나 준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느끼는 배움의 즐거움

구직 중인 취업준비생부터 이직을 고민 중인 근로자, 업무 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근로자,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중장년까지, 배움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민 누구나 훈련을 통해 직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리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 국민 누구나 배움으로 역량 강화

급격히 발전하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국민내일배움 카드는 이 같은 환경에서 취업준비생 등 국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받아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및 향상할 수 있도록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취업준비생·재직자·자영업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연 매출 4억 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 내용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 훈련비의 45~85% 지원

#### 훈련비 지원율

구분	지원율	구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특정계층	50~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특정계층	80~100%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http://www.work24.go.kr))

## 카드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할까?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 고용24([www.work24.go.kr](http://www.work24.go.kr)) → 직업 능력 개발 클릭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http://www.hrd.go.kr)) → 국민내일배움카드 클릭 → 발급 신청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①

#### 발급 신청

발급신청서·신청자 권리 및 의무사항 확인서 작성  
(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 필요)

②

#### 계좌발급 여부 결정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발급 결정  
(고용센터)

③

#### 카드 수령

우편 또는 은행 방문

### 발급 시 필요 서류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 카드 사용 방법

①

고용24 또는  
HRD-Net에서 원하는  
훈련과정 검색 및 선택

②

#### 수강신청

3  
수강신청

③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선발

4  
훈련생 선발

④

자부담금  
결제\*

5  
자부담금  
결제\*

\*훈련비 지원율에 따라 국비지원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내에서 차감되며 자비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

##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유형

훈련 유형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	디자인·법무·전산·세무회계·간호·기계·냉동공조·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 과정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국가의 기간이 되는 중요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3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 과정으로 구성 〔최초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 지원〕
과정평가형훈련	과정 이수 후 내·외부 평가 합격 시 국가기술자격 취득 가능한 훈련 과정
일반고특화훈련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훈련 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삼성·KT 등 선도기업, 대학, 민간 혁신기관 등이 직접 기업의 실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훈련과정 〔최초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 지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훈련 과정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역별·산업별로 차별화된 훈련을 제공하는 지역별·산업별 맞춤 훈련 과정 〔최초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 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검색 및 확인 가능

## 직업능력도 쌓고, 훈련장려금도 받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을 수강한 실업자 등 참여자에게  
월 최대 11.6만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단, 훈련 기간 중 단위 기간 출석률을 80% 이상 달성해야 한다.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 훈련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 원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훈련장려금 외에도, K-디지털 트레이닝(단기 과정은 제외)과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육성산업직종에 해당하면서 총 훈련시간 350시간 이상인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출석률 요건 충족(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월 최대 20만 원의  
특별훈련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절차

- ① 훈련 과정 공고  
고용부·심평원
- ② 훈련 과정 선정  
고용부·심평원
- ③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고용센터
- ④ 훈련 실시  
훈련생·훈련기관
- ⑤ 훈련비 등 지급  
고용센터





## 한계를 뛰어넘고 두 번째 커리어를 잇다

이선주  
수성대백인터빌  
관리소장

오랜 시간 사회생활을 활발히 했던 이들은 일을 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강하기 마련이다. 학습지 선생님이었던 이선주 소장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두 번째 커리어로 일할 맛 나는 일상을 즐기는 중이다. 나이와 편견을 가뿐히 뛰어넘고, 머뭇거림과 포기 없이 '도전'을 이어온 결과다.

글 김주희 사진 김규남

### 막막했던 현실에서 만난 국민내일배움카드

“아파트 구석구석이 예쁘달까요? 담장에 샛노란 장미를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매일 거니는 장소, 날마다 보는 풍경이지만 애정이 잔뜩 가는 모양이다. “우리 소장님 보러 왔어라며 할머님들이 살갑게 인사해 주실 때면 보람되기도 하고요.” 이선주 소장에게 아파트 단지는 단순히 일터가 아니다. 마음을 다해 가꾸는 또 하나의 ‘집’이 되었다.

이선주 소장은 2022년 1월부터 관리사무소장과 경리를 겸직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공용 부문 유지·보수·수선을 비롯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건축물 안전 점검 진행 업무까지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는 중이다.

사실 이선주 소장은 남들과 비교해 다소 늦은 나이에 관리소장직을 처음 맡았다. 학습지 교사로 활동하다 남편의 가게 운영을 돋는 등 지금 과는 다른 행보를 이어오던 그녀의 일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당시 가게 폐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주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당이나 마트에서 소일거리를 하다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나이 제한이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길로 고용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고 국민 누구에게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알게 되었어요. 학원을 알아보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공동주택 회계 실무자 양성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상황이 설레면서 기쁘더라고요.”

35년 만에 다시 시작한 공부가 쉽지는 않았지만 과정을 모두 수료한 후에도 배움은 계속되었다. ‘사무자동화 및 ITQ 마스터 자격취득과정’을 통해 아파트 회계 업무에 유용한 자격증까지 갖추게 되었다.

#### 좌절을 ‘배움’으로 극복하다

컴퓨터를 배워본 적 없던 이선주 소장에게 도전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독수리 타법은 아무리 연습해도 더디기만 했고, 평소 들어본 적 없던 회계 용어 또한 외국어처럼 생소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법은 단 하나, 반복이었다. 반복을 거듭하며, 자신의 역량을 하루하루 간신히 전문가 반열에 오르고 있었다. 자격증 취득까지 마친 후 곧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또 한번 좌절의 순간을 맞아야 했다.

“56세란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 직무지만 면접자 모두 나이가 많다는 의견을 내비쳤죠. 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절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제공한 기회를 꼭 살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도록 또 다른 배움을 이어 나갔습니다.”



**나이를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심을 담으면 어디에든 '내 자리'가 있을 겁니다.**

수 있었다.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주부로서 연륜이 있기에 입주민들과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죠. 처음에는 연락이 없었는데 12월 31일 오후 5시에 합격 연락을 받았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생애 최고의 연말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던 첫 출근날부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동현관 파손과 누수 등 돌발 상황을 해결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는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냈다. 초기에 맞은 ‘예방주사’ 덕분에 관리소장으로서의 실무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이선주 소장은 퇴직 후 재취업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생각의 방향을 달리할 것을 당부했다. 나이를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에 집중하라는 것. 또한, 진심을 담으면 어디에든 ‘내 자리’가 있을 거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3년 후 승강기 공사를 앞두고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을 조정해 놓았어요. 얼마 전에는 수성구청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CCTV 공사도 무사히 마쳤고요. 입주민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훗날에는 더욱 큰 규모의 단지로 옮겨 제 역량을 펼치고 싶습니다. 70세까지 즐겁게 일하고 싶은데, 꿈을 이룰 수 있겠죠?” 물론이다. 그 어떤 벽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전문성을 연마해 온 이선주 소장이기에 내일은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구직에 나섰다. 첫 번째, 두 번째 지원에는 면접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세 번째에는 드디어 면접을 볼



##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받아 가세요!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기업)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여러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 어카운트인포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 PC·모바일로 간편하게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니던 직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는 사실이나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한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SMS와 우편 등으로 안내해 왔지만가입자 명부 누락이나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연계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024년 6월 기준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 원(4만 8,905명), 폐업 추정 24.5억 원(711명), 기타 1.6억 원(18명) 등 총 1,085억 원(4만 9,634명)에 달한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어카운트인포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 PC



##### 모바일



# 21세기 인류의 필수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김묘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대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알고리즘으로 콘텐츠를 즐기고,  
키오스크로 상품을 주문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업무에 활용하는 시대다.  
디지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은 유네스코가  
21세기 인류의 기본권으로 간주했을 만큼 현대인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꼽힌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은 무엇일지  
김묘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대표에게 들어본다.

글 김지연 사진 고인순

## Q 디지털리터러시협회의 역할과 대표님의 활동에 대해

### 설명 부탁드립니다.

디지털리터러시협회(이하 협회)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낮설던 2016년 우리나라에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과 중요성을 전파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법론과 소프트웨어 활용 역량,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소통과 협력 등의 교육을 제공해 온 선도적인 교육기관입니다. 초반에는 청소년 대상 교육을 주로 했지만 현재는 취업준비생부터 직장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 Q 디지털 리터러시란 무엇이며, 현대 인류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지털 리터러시란 좁은 의미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기업의 경우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서비스와 매출을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며, 사업을 혁신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겠죠. 기업 및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디지털 의사소통 등 올바른 디지털 문화에 기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협회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일차적인 '디지털 기술과 윤리 역량'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삶의 역량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역량이 재정의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역량인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창의력, 협업 능력 등도 디지털을 이용하는 시대에는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Q 소비자들이 디지털·미디어를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양이 늘어나는 데다 자극적이고 허위적인 정보가 확산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 광고나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주장하는 상품들,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

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허위정보를 식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딥페이크, AI 보이스피싱, 스팸봇 등 디지털 기술과 이를 이용한 신종 범죄들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갖고 미디어나 콘텐츠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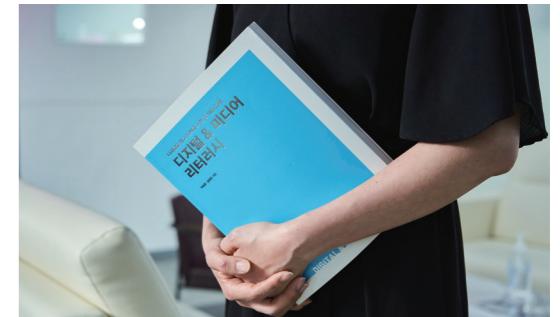
#### Q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DIQ(Digital Intelligence Quotient)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검정 시스템으로 1,500여 개의 문제가 저장된 문제은행과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 목표에 대한 버전을 생성해 적합한 문제가 자동으로 추출되며, 영역별 상세 보고서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영역을 확인할 수 있지요. 교육 전후 DIQ 진단을 통해 자신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느



#### Q 대표님처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기술적 역량도 갖춰야 하고, 대상과 목적에 맞는 교육 설계 능력도 필요합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능력도 필요고요. 학습자뿐 아니라 교육자 간의 의사소통과 협업, 디지털 윤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실천하는 역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적성에 맞고,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세상에 대한 공부가 즐겁다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전문가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교육이 필요한 요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전문가는 미래 교육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디지털 시대의 교육 혁신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미래 직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란 무엇일까요?



AI의 발달, 디지털화, 탄소 증립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산업 전환의 속도는 놀랄 만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점점 늘어날 텐데요. 특히 중소기업의 차원에서는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서는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전환 훈련을 제공합니다.

글 유현승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16기 | 참고 고용노동부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과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직업 능력개발훈련 플랫폼입니다. 산업전환 수요가 가시화되는 분야(자동차, 에너지, 조선 등)를 중심으로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하고, 공동훈련 협약을 통해 공동훈련센터가 보유한 훈련·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협약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합니다.

2022년 첫 번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가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전문기업인 삼성중공업에서 개소했습니다. 첫 출발을 끊은 삼성중공업 이후, 2023년에 20개소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었는데요. 2024년에 산업전환 공동훈련 센터 5개소가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협력하여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항만으로 전환을 위한 운영터미널, 항만물류산업계의 재직자 직무전환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국립목포해양대 김연원 교수 인터뷰

### Q 공동훈련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 계획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항만 공동훈련센터는 2024년부터 2028년 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운영 계획은 크게 자동화, 지능화, 스마트화 세 단계로 나뉩니다. 2024년에는 스마트항만의 기본적인 자동화 기술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2025년부터 2026년 까지는 지능화 단계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항만 운영의 최적화 기술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스마트화 단계로, IoT(사물인터넷)와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통합한 스마트항만 운영을 다룰 예정입니다.

### Q 현재 담당 분야에서, 미래산업이 어떻게

####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현재 스마트항만 분야는 빠른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동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통합되어, 항만 운영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자동화 장비와 자율 운영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자율 운항 선박과 자동화된 화물 처리 시스템이 표준화되어 항만 운영의 속도와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재생 에너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항만 운영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항만은 기술 혁신을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미래산업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터뷰를 모두 마쳤는데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2026년까지 매년 확대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산업에서 근로자에게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미래에 확대될 산업전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역사에 가치를 더해 브랜드가 되다

**아주 오래된**

**대전 소제동 이야기**

물건이든 장소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오래된 것'이 가진 매력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낡은 것으로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 매력을 지키고 싶다면 오래된 것에 새로운 발상을 더해 보는 건 어떨까. 어쩌면 본래의 모습보다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다시 활기를 찾은 소제동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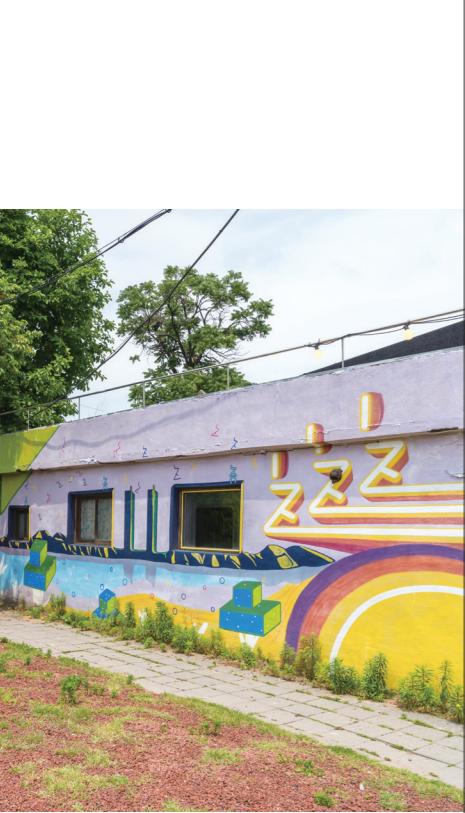
글 김민영 사진 정우철



## 역사와 함께 희미해져 간 동네

지금의 소제동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핫플레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전의 소제동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소제동에는 소제호(蘇堤湖)라는 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지만, 철도 건설이 시작되자 매립되었다. 소제호가 있던 자리에는 1940년대 일본 철도 관료, 기술자, 노동자들을 위한 철도관사촌이 만들어졌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동, 북, 남쪽에 넓게 자리한 철도관사촌 덕분에 한동안 마을에는 활기가 도는 듯했으나 이마저도 잠깐이었다. 한국전쟁으로 북, 남관사촌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소제동에 있던 동관사촌은 남게 되었지만, 도시화를 거치면서 동네는 점점 활기를 잃어갔다. 빈집이 즐비했고, 가로등 불빛은 꺼져갔으며, 녹슨 슬레이트와 깨진 담벼락들만이 소제동을 지킬 뿐이었다.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 소제동의 가치에 주목하다



처참한 모습이었음에도 소제동이 가진 가치는 분명했다. 한쪽으로는 시냇물이 흐르고, 주변에는 동서교와 철갑교, 철도문화 시대의 중심이 되는 대전역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간직한 이 마을만의 깊은 역사가 있었다. 도시재생사업을 이어오는 기업 익선다는 이런 소제동에 주목했다. 소제동의 사라진 호수, 역사를 살려 문화, 사람이 공존하는 마을로 다시 만들고자 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익선다의 소제동 프로젝트다. 역사적 가치로도 생활 터전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동네인 소제동을 다시 쓸모 있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소제동이다.

녹슨 슬레이트는 깔끔하게 바뀌었고, 깨진 담벼락들은 허물거나 그래피티와 벽화가 더해져 요즘 스타일로 다시 태어났다. 무엇보다도 머물기 좋은 카페, 개성 둘어나는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났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지금 소제동으로

활기를 찾은 소제동은 특히 여행자들에게 반가운 여행지다. 대전역에서 5~10분만 걸어가면 소제동 골목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대전 여행 코스에 꼭 들어가는 동네가 되었다. 정겨운 골목길 풍경은 계속 걷고 싶게 만들고, 유니크한 담벼락은 멈춰서 사진을 찍고 싶어진다. 특색있는 가게들은 두말할 것 없이 그 자체로 포토존이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동서교를 그늘 삼아 쉬어가는 주민들과 여행자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렇게 걷다가 쉬기를 일삼다가 삼가교를 건너면 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도 보인다. 변화한 소제동 중심과는

또 다른 모습이다. 다양한 모습의 공존이 소제동의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해주는 것 같다.

소제동 개발 초기만 해도 과연 이곳에 누가 올지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소제동의 모습은 그 걱정이 기우였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가게마다 발 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니 말이다. 역사적 가치에 새로운 이야기를 입힌 결과로 탄생한 2024 소제동 뉴트로 트렌드의 정점에서 소제동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게 될까. 자못 궁금해진다.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SNS에 공유하고 싶어서, 체험형 콘텐츠가 재미있어 보여서.  
팝업 스토어에 방문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 소비가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시대, 개성 넘치고 독특한 팝업 스토어 열풍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 최근 기업의 필수 마케팅 수단으로 떠오른 팝업 스토어의 인기 요인은 무엇일까?

글 김지연

## 보다 독특하고 즐겁게! MZ세대 신규 놀이터

팝업 스토어 열풍



### 반짝하고 왔다가 반짝하고 사라지는 곳

팝업 스토어는 일정 기간 짧게 운영하는 임시 매장을 뜻하는 것으로, 온라인 웹사이트에 떴다 사라지는 팝업창과 유사해 이런 이름이 붙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반짝 매장'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팝업 스토어는 보통 2~3주의 짧은 기간 동안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인데, 의류나 화장품은 물론 드라마, 애니메이션, 가수의 굿즈(기념품), 생활용품, 식품, 자동차 등 판매하는 제품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팝업 스토어에서는 기존에 판매하지 않았던 한정판 제품이나 사은품을 선보이거나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익숙하던 브랜드에 독특한 콘셉트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즐거운 체험형 콘텐츠를 더하니 트렌드에 민감하고 색다른 체험을 선호하는 MZ세대가 열광하지 않을 수 없다.

영업시간 한참 전부터 팝업 스토어 앞에 줄을 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뉴스나 SNS에 심심찮게 등장하기도 한다. 최근 종영한 인기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는 작품 관련 굿즈를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픈과 동시에 하루 입장 인원인 1,500명 예약이 마감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소비자·기업 모두 윤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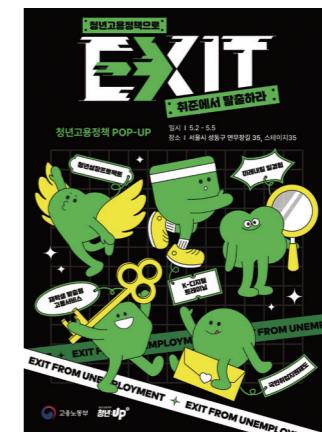
팝업 스토어의 성지로 꼽히는 서울 성수동에는 월평균 60~80개의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 최근에는 마치 전시회처럼 팝업 스토어를 탐험하는 국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K팝 아이돌의 굿즈나 패션에 관심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기업이나 브랜드가 직접적인 이득이 없는데도 장소 대여 등을 포함해 각종 부대비용을 감수하며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이유는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팝업 스토어에서 색다른 체험을 즐기고 이를 SNS에 공유하면서 브랜드와 제품은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홍보를 통해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고객 유치로 연결되기에 너도 나도 팝업 스토어 운영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변화를 꾀하는 브랜드에도 팝업 스토어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다소 높은 연령층이 선호하던 주류가 팝업 스토어에서 세련되고 트렌디한 패키징을 선보여 젊은 세대에게 눈도장을 찍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소비자들의 반응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뭐니 뭐니 해도 팝업 스토어의 가장 큰 매력은 희소성과 한정성이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색적인 경험과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이 바뀌지 않는 한, 팝업 스토어 열풍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팝업 스토어  
청년고용정책으로 취준에서 탈출하라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서울 성수동 스테이지35에서 '청년고용정책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원이 참여해 청년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청년고용정책으로 취준에서 탈출(EXIT)하라'는 콘셉트로 꾸몄다. 청년들이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고용정책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방탈출 게임, 에어볼 게임,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러 청년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 01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 신설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5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을 신설했다. 그간 사용자가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미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가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02

### 중기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자 지원금 지급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게 지난 5월 31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됐다. 푸른씨앗은 월평균 보수가 최저 임금의 120%(242만 원, '23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해 최대 3년 동안 사용자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푸른씨앗 누리집을 통해 제도 가입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가입된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03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높은 올해 여름철 건설현장에서의 비상상황 대비 등을 위해 사고유형별 사고사례, 안전수칙 및 자율점검표 등을 담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했다. 올해는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어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자주 관측되는 추세라는 점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강·하천 주변에 위치하거나 지대가 낮은 건설현장, 맨홀·배수시설 공사현장 등은 집중호우 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4

### AI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확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고용 24에서 자신의 경험과 경력, 연령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고, 진로탐색·경력설계에 중요한 임금, 자격, 재취업 경로 등 풍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강화했다.

먼저, 지난 2020년 7월에 개시한 'AI 일자리 매칭'에 연령대별 선호 일자리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추가해 나와 동일한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직무역량 분석, 노동시장 정보 및 맞춤형 일자리·직업훈련·자격을 추천하는 '잡케어 서비스'는 노동시장 정보를 고용보험 정보까지 확대(8종→13종)해 구직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05 「2024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추천 접수



고용노동부가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24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한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노사관계 발전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산업현장에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노·사 상생협력 실천,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일·생활의 균형 실현 등에 기여한 유공자 총 4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노사문화유공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1과)에 포상후보자 추천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민추천제(온라인)로 추천할 수 있다.

## 06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지난 6월 10일, 고용노동부가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리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하부 조직으로 신설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 구축,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익 보호, 의견수렴 및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 07 대한민국, 국제노동기구 정이사국 선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제112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

임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ILO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구축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응, 노동약자 보호 등 ILO의 정책 결정에 아태지역 대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7일부터 2주간 여성 다수 종사 업종을 대상으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제도 및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해 집중적인

## 08 여성다수종사업종 대상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홍보와 현장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일·육아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2주간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4,500여 개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직접 만나 육아지원제도 및 기초노동질서를 직접 안내했다. 한편, 지난 3월 청년 휴식권 보호를 주제로 실시한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총 4,586 개의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방문해 9천 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적정 휴식권 보장을 지도했다.

코로나19 이후 수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그中最 크게 변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대면 진료 등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보다 진화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좀 더 건강한 삶을 꿈꾸고 있다.

글 이경희

## 이제는 건강도 디지털로 챙긴다

### 지금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 아프기 전에 관리하고 예방한다

몸이 아파야 밭걸음 무겁게 찾아갔던 병원, 오래 기다려야 만날 수 있었던 의사, 진통제로 버티던 통증. 불과 얼마 전까지 건강을 챙기기란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었다. 그러나 의학과 IT가 만나 눈부신 발전을 이룬 지금 이 시대, 건강을 챙기는 일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아프고 난 뒤에 병원이나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 건강을 돌봄으로써 질병과 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단어는 우리 시대에 더 이상 새롭지 않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한마디로 IT 기술과 의료가 하나로 융합되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는 예방학적 측면에서 고령화 인구를 넘쳐나는 현시대에 환자와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개인의 행복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매우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정부의 기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하에 보건복지부에서 디지털 기반 의료를 실현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각광 받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흐름에 기반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스마트폰 및 IoT 기반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디지털 도구, 의료기기 전문 업체와 글로벌 ICT 기업의 시장 진출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질주하고 있다.

#### 일상 속 건강관리, 무병장수를 기대하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현재 여러 분야에서 우리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 즉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다. 이 앱이나 기기들은 심박수 측정, 운동 측정, 수면 분석, 스트레스 정도, 영양 등을 파악해 정보를 제공해 개인이 스스로 건강을 피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익숙해진 원격진료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 항목 중 하나다. 이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증상이 심한 환자들



에게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음성이나 화상통화를 통해 의사와 상담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중에게 가장 익숙해진 방법이기도 하다.

보건 의료 분석학 역시 발달했다. 이는 개인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종종 질환 예방과 관리에 활용하는 분야로 질병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증 질환자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 보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 건강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 정보 교류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 또한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재생의료, 유전체 분석 등 뛰어난 기술이 기반이 될 미래 헬스케어 시스템. 의료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혁신적인 주체자로서 향후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광고·  
마케팅  
전문가

## 빛나는 아이디어로 소비자를 사로잡고 싶다면

매일 사용하는 핸드폰, 가방, 심지어 책상 위의 볼펜 한 자루까지도 광고·마케팅전문가들의 치열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에 나와 우리 손에 들어온다.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광고·마케팅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향이 필요할까?

정리 편집실 참고 책 「MBTI 진로탐색」의 다수



### ENFP의 특징

#상상력 #새로운 일 추구  
#타인과 상호작용

“외향적이고 창의적입니다.

열정적이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 맺는 데 능숙합니다.”

ENFP형은 활동가형으로, 활기차고 낙관적인 동시에 외향적이며 개방적 인 성격이다. 친절하고 사교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긴다.

인생의 즐거움과 깊은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편이다. 매사 즐거워 보이는 걸모습과 달리 내면이 깊어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하다. 다양한 감정과 아이디어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즐겁게 만들곤 한다. 긍정적이면서도 열정적이라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다소 자유롭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 E 나의 에너지 방향은?

#### 외향형 E ✓

-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기 원해요.
- 사교적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기 원해요.
- 깊이 생각하고 혼자만의 생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 N 나의 인식 기능은?

#### 감각형 S

- 실제의 경험, 현재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직접 관찰한 정보를 신뢰해요.
- 영감, 아이디어, 의미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직감을 신뢰해요.

### F 나의 사고 성향은?

#### 사고형 T

-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하기 원해요.
- 일관성, 공정성, 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 가치관, 공감,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요.
- 조화, 공감,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 P 나의 의사 결정은?

#### 판단형 J

- 계획해서 결정을 내리고, 일정을 따르는 것을 좋아해요.
- 명확성,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중시해요.
-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고 선택권을 열어두는 것을 선호해요.
- 유연성, 자발성, 개방성을 중시해요.

## 나에게 맞는 직업일까요?

### 광고·마케팅전문가의 성향

#### 창의력

사소한 아이디어도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 협동심

팀원 및 제작자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 의사소통

광고주와 협상하고 소비자를  
설득하고 싶다.

#### 미적 감각

트렌드에 민감하고 예술·감수성이  
풍부하다.

#### 통찰력

책을 많이 읽고 사회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 자기 통제

밤샘 작업, 업계의 치열한 경쟁을  
견딜 수 있다.

#### 하는 일

-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해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계획한다.
- 광고의 방향과 콘셉트, 전략 수립부터 광고 제작까지 총괄한다.

#### 관련 학과

광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영상학과

#### 취업 분야

- 광고기획사, 광고/홍보대행사, 신문사, 잡지사
- 카피라이터, SNS 마케터, 광고감독, 행사기획자

### 챗 GPT가 살펴본 직업 전망

광고·마케팅전문가의 직업 전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기술 발전과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0.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해 마케팅 전문가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마케팅 전문가로서 성공하려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데이터 분석 능력과 기술적 역량,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채널과 전략을 이해하고 창의성과 분석력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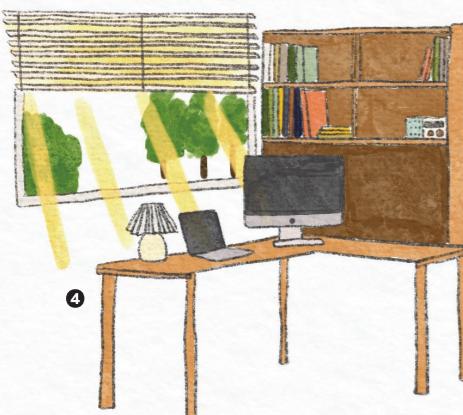
### 광고·마케팅전문가는 어떤 일을 할까

광고 기획과 마케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 행사를 기획한다. 특정 상품의 시장성이나 소비자의 취향, 잠재 구매 고객 등에 대해 조사해 효율적인 상품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며 상품의 광고 체결부터 제작 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지휘한다. 또한, 특정 조직이나 사람의 특성에 맞춰 전문적인 홍보를 담당하기도 한다.

## 효율성을 높이는 몇 가지 방법



평소 일할 때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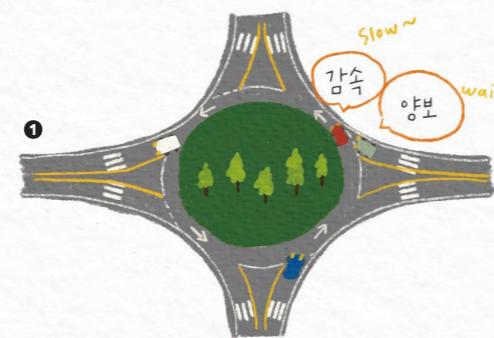
두 번째, 주변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해서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자.



첫 번째, 도렷한 기억보다 회미한 연필 자국이 더 낫다.  
떠오르는 생각을 휴대폰이나 노트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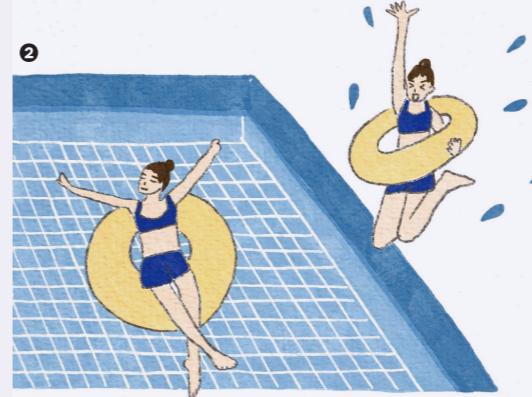


세 번째, 짧게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때도 있다.  
여덟 일어든 주어진 시간만큼 늘어진다는 패킨슨의 법칙을 기억하자.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감속의 원리로 차량 통행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 여행의 참맛



추위에 맞는 숙소를 찾아 예약하고 내가 물인지 물이 나인지 모를 정도로 물놀이를 즐기고



여행이 왜 오랜 여운이 남을까 생각해 보니 새로운 장소에서 긍정적인 감정들을 엄유롭고 깊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행 좋아하세요?



뜻밖에 만난 멋진 풍경에 감탄하게 되었던 그런 여행은 기억에 오래 남죠?



이번 여행도 기대를 가득 담아 떠나봅니다.  
즐거운 여름 여행 되세요!



# 『월간내일』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월간내일』 2024년 7월호를 읽고 퀴즈에 응모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QUIZ

국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받아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및 향상할 수 있도록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Tip) <고용 아카이브> 코너

Hint!

### 국민 투职业 카드

사용자(기업)가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Tip) <일터애(愛)서> 코너

Hint!

### 퇴직금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 참여기간

2024년 7월 16일(화)까지

6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3782 5080 6510 7522

\* 당첨자에게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2302 3155 4121 4139

8696 2208

# 『월간내일』 독자 라운지

이번 「월간내일」 잘 읽어 보셨나요? 이번호를 읽으며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이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더욱 알찬 「월간내일」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① 이번 「월간내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 ② 이번 「월간내일」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앞으로 「월간내일」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참여기간 2024년 7월 22일(월)까지

※ 당첨자에게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 『월간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 ①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 ②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